



水邊情談

야, 살았구나! 드디어 새 축이 나왔구나.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2년쯤 된 것 같다. 직장 동료들 몇이서 전라도 어딘가로 난을 캐러 간다고 하더니 춘란 몇 축을 내게 주었다.

나는 원래 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까다롭다고 하는 난 기르기에 선뜻 나서고 싶지도 않아 어느 집이건 한두 분(盆)쯤은 있기 마련인 난 분 하나 갖추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난이라고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보니 아무리 야생란

이던 것이었는데 분에 심고 보니 제법 그럴싸 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내 방에 난분이 놓여지게 되었다. 허나 하나를 놓고 보니 너무 외로워 보인다. 정을 붙이고 뿌리를 내릴 엄두조차 못 낼 것만 같다. 퍼뜩 평소 난을 좋아 하시는 숙모님이 생각나 전화를 드리니 난을 나눠 주시겠다는. 쇠뿔도 단김에 빼겠다고 내친 걸음에 숙모님 댁에서 난 분 하나를 얻어 함께 봐주었다.

한결 좋아보인다. 갑자기 방안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고, 나도 제법 운치깨나 아는 선비같아 보인다.

나는 그 때부터 난에 상당한 정성을 기울였다. 헌데 숙모님 댁에서 가져온 난은 이내 새 축이 올라오고 잘 자라는데 야생 춘란은 늘 그대로다. 혹시 뭐가 잘못 되었나 싶어 뿌리를 확인해보면 뿌리가 메말라 있기도 했고, 어떤 때 뿌리가 거의 다 썩어 있기도 해서 이게 어떻게 살아어나 싶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난에 더욱 애착이 가는 게 아닌가. 아내는 자기보다 난을 더 생각하며 자기는 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투정을 해뒀지만 나는 그 난이 죽게 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더욱 난에 신경이 썩었다.

헌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내가 마음을 써주면 써줄수록 난은 더 몸살을 하는 것 같았다. 더욱이

## 숨어 있는 향기

이라고는 해도 내가 평소에 보아왔던 그런 난의 품위도 찾아볼 수 없었고, 가느다랗고 연약해 보이는 잎은 과연 내가 이것을 키워낼 수 있을까 싶게 자신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나도 명색이 글을 쓰는 사람에다 이 나이의 내 방에 난 분 하나 없다는 것도 조금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의 집에 갔을 때 마다 눈에 들어오던 난의 신비롭던 꽃 모습이며, 은은하게 풍겨나던 난향이 생각나 이 기회에 나도 한 번 시작해 볼까 하는 호기도 생겼다.

꽃집에 들러 화분과 흙을 사고 그곳에서 일러준대로 정성스레 심었다. 초라하고 볼품 없어 보

崔元賢  
(수필가)

얼핏 보면 이미 죽은 것처럼 보여 당부를 해 놓았지만 내가 없는 사이 누가 밖에 내다 버리거나 앓을까 하는 불안까지 겹쳐 나도 함께 앓기 시작했다.

그런 난이 죽지 않고 끈질기게 나와 함께 목숨 지키기를 하더니 오늘 이렇게 산을 들어올리는 감격으로 새 촉을 튀워올린 것이다.

그 동안 몇 개의 난 분이 늘었다. 허나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춘란에 각별한 정성을 쏟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얼마 전 난을 파는 곳에서 내 난 이야기를 했더니 난의 생김새를 물고는 그런 난은 일이천원이면 한 줍씩 준다면서 웃는 것이었다.

허나 나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애지중지 마음을 써 주었던 난이 그렇게 값싸고 흔한 것이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정성을 쏟았구나 하는 후회와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속이 상하거나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잘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에 내가 처음부터 난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그런 난을 준다고 받거나 했겠으며, 설혹 받았다고 해도 그토록 정성을 쏟을 수 있었겠으며, 몇 번의 죽을 고비를 함께 앓아가며 목숨을 지켜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파도처럼 물려들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되는 세

상이기에 좋아보이면 우선 얼마 짜리냐고 묻는 요즘 사회이지만 생명엔 귀천이 있을 수 없는 것, 비록 한 포기 난일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섭리와 은총이 내려진 생물체요, 어찌면 인간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아름다운 피조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그때 앞으로도 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좋고 귀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나도 필시 그 좋은 것,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가치있다고 평가하는 것들 쪽으로만 눈을 돌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선 자연스럽게 발도 돌릴 것이 아닌가. 그리고는 그것이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릴 것이다.

물론 난은 꽃을 보기 위함이나 나중에 내가 것처럼 정성을 쏟았던 난에서 피어난 꽃이 볼품이 없어서 몹시 속이 상할런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보다 어찌면 꽃조차 피워내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해가넘는 동안 나의 마음 써줌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인내하며, 참으로 힘겹게 힘겹게 뿌리를 내리고, 드디어는 하늘 문을 여는 감격으로 장하게 촉을 튀워 살아있음의 의미를 내게 보여준 난에게서 고마움과 안쓰러움과 감동을 함께 안는다.

거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자 난의 감격, 환호, 기쁨, 보람

이 정말 하늘에 닿는 충만함으로 내게 향해진다.

내가 국민학교에 다닐 땐데 집 안어른 한 분의 별명이 '섯다'였다. 별명이 하도 이상하여 왜 셋다라 하느냐고 물었더니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며 기다렸다는 듯 배를 움켜쥐곤 웃어댄다.

애기인즉, 그 할아버지가 일곱 살까지 일어서지를 못했단다. 그 래 영영 서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날 보리 타작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방 안에서 '섯다'하는 소리가 나서 하던 일을 멈추고 바라보니 일곱살 짜리가 열린 방문 고리를 붙잡고 일어서서 다리를 덜덜 떨며 저 혼자서 일어섰다고 환성을 지르더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곧 다리에 힘이 오르기 시작하여 걷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별명이 그날 이후로 '섯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옛날에 들었던 그 셋다 할아버지의 감격이 어찌면 저 춘란의 감격이 아닐까 싶다.

이제부터 저 난도 셋다 할아버지 처럼, 자람도 다른 난에 뒤지지 않고 쑥쑥 자라오를 것 같고, 뿌리도 난분에 가득하도록 튼실하게 차오를 것 같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없다고 쉽게 자포자기해 버리고, 또 쉽게 저버리고 마는 이 시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신선하고 맑게 들려오는 한 소리인가.

난 분을 여러개 별이 들 수 있

는 쪽으로 옮겨주며 어느 난도  
가지지 못할 너만의 꽃을 피워내  
다오 가만히 속삭여 본다.

꽃도 피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여지껏 말아보지 못했던 솔향기,

풀내음들이 물려와 춘란을 감싸  
고 방안엔 때 아니게 피지 않은  
난에서 나는 난향이 가득 차는  
것 같다.

향기는 꼭 핀 꽃에서만 나는

것이 아닌가보다. 사람에게서도  
품향이 나타나듯 어찌면 가장 향  
기로운 것은 꽃을 속으로 머금고  
있을 때의 숭고한 정성스러움에  
서 나는 것은 아닐까.